

(단장님 임명 9주년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일치는 내면에서 태어난다"

오푸스데이의 단장님이 학생들과 하느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적 차원인 일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2026-1-23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교회와 오푸스데이의 일치

“일치되고,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되며, 화해된 세상을 위한 누룩이 되는 교회”.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교황직 시작 미사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 면에서 교황직의 지평을 표시하고 있는 염원을 표현하셨다.

8개월 후, 우리는 교황께서 성문을 닫으시고 희망의 희년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시간 동안, 일치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 사회, 그리고 인간 자체의 구성적 특징이며, 따라서 희망의 문을 열린 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은 로마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 신학 및 철학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오푸스데이 총대리 페르난도 오카리스 주교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질문들로부터 받은 선물, 공유된 과업,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가 말씀하셨듯이 지배적인 열정으로서의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전개된다." (...)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geuriseudowa-hamgge-isseumyeon-
ilcineun-naemyeoneseo-taeonanda/](https://opusdei.org/ko-kr/article/geuriseudowa-hamgge-isseumyeon-ilcineun-naemyeoneseo-taeonanda/)
(2026-1-23)